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40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www.kwangju.co.kr 2009년 6월 23일 (음력 5월 1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또 꼬인 2010 F1

페라리 등 8개팀 영암대회 불참 선언…'반쪽대회' 우려

최종 엔트리 선정 연기

내년 10월 영암에서 개최될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주요 경주팀의 불참선언으로 위기를 맞았다. 〈관련기사 3면〉

당초 이달 국회 통과가 당연시 됐던 F1 지원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으로 차질을 빚은데 이어 또다시 불참 선언이 나오면서 대회 성공 개최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전남도와 코리아F1대회운영법인 카보(KAVO)에 따르면, F1대회 참가팀 중 8개 팀의 연합체인 FOTA(F1팀협회)가 지난 18일 영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F1대회에 불참하고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경주를 독자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FOTA는 F1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10개 팀 중 페라리와 맥라렌, 르노, 도요타, 레드불, 토로로소, 브라운, BMW 등 8개팀이 참여한 단체로, 이들은 그동안 F1대회 총괄기구인 FIA와 수입배분 및 대회 운영규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이번 불참선언은 FIA가 신생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며 각 팀의 예산을 연간 4천만 파운드(약 830억 원) 이하로 줄이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자, 페라리 등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써온 기존 팀들이 크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FOTA는 "FIA의 방침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스피드를 낸다'는 F1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차량 성능이 떨어지고 마케팅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F1의 인기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F1대회 참가팀 최종 엔트리 선정도 연기된 상황이며, FIA와 FOTA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F1대회가 2개 대회로 나눠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F1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페라리와 BMW 등 마니아층이 두터운 인기 팀들이 F1에서 빠져나가면 F1대회 흥행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내년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 F1대회 역시 '반쪽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일단 FIA와 FOTA의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것이며, FOTA가 실제로 F1대회를 떠나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F1 불참 선언도 결국엔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대회의 브랜드 가치 등을 감안하면 FOTA가 실제로 FIA를 떠나 독자적인 대회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FOTA와 FIA 양측이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대타협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등기, 개성고 품에

22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부산개성고와 서울 장충고 경기에서 개성고 선수들이 우승이 확정되자 김상재 감독을 헹가래치며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만원권 오늘부터 풀린다

5만원권 지폐가 23일부터 사용된다. 〈관련기사 8면〉

한국은행은 23일 오전 6시부터 금융기관 본점과 결제모점(한은과 입출금 거래하는 지점)에 5만원권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오전 9시부터 점포의 문을 열면서 5만원권을 고객들에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원권을 인출하는 것도 오전 9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액권이 나오는 것은 지난 1973년 6월의 1만원권 이후 36년만에 처음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검찰·국세청 인사 후폭풍

고·지검장 등 줄퇴진 예고 속 호남인맥 공백 우려

광주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 명퇴 신청 잇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신호탄으로 검찰과 국세청에 인사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사시 20회인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21회인 김준규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시 후배인 천성관(22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수로 내정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 총장 내정자의 선배 기수인 사시 20회와 21회 고·지검장의 줄퇴진이 예상된다. 명동성 법무연수원장(이상 사시 20회)을 비롯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문성우 대검차장, 문효남 부산고검장, 신상규 광주고검장, 이준보 대구고검장(이상 21회) 등의 용퇴가 점쳐지고 있다. 이귀남 법무 차관 등 10여명에 달하는 총장 내정자의 동기들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문성우 대검차장, 이준보 대구지검장 등의 퇴진은 검찰내 호남인맥의 공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김경한 법무장관이 이날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 내정자의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일체의 동요 없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해 차기 총장 취임전까지 고위간부들의 사퇴 표명이 자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 간부들의 명퇴도 줄을 잇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광 광주지방국세청장(55)을 포함해 국세청 간부 1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청장은 백용호 신임 청장 인사발령 이후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창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과 함께 6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이들 국장급 간부 3명외에 1950년생 세무서장(서기관급) 등 15명의 간부도 이달 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일선 세무서장은 1950년생 11명과 1951년생 2명, 행시 21회 2명으로 대부분 4급 서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퇴임하는 서기관급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간부들의 대규모 명퇴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취임과 맞물리면서 대폭의 인사단행 등 조직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필수·최경호 기자 bungy@

반짝 해갈…300㎜ 더 와야 식수난 해소

광주 제한급수 다음달말로 늦춰질 듯

광주·전남지역에 이틀간 내린 장맛비로 농작물 해갈에 적지않은 도움이 됐으나, 식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보성 135㎜를 비롯한 담양 111.5㎜, 순천 107㎜, 광양 99.5㎜, 영광 94.5㎜, 광주 86.5㎜, 장성 83㎜, 목포 44㎜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남쪽으로 이동한 장마전선이 이달 말을 전후로 다시 북상해,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로 오는 7월 중순께로 예정됐던 광주 지역 제한급수 시기는 7월 말께로 늦춰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암호와 동복호의 저수율이 전날 밤 10시 현재 각각 14.6%, 11.1%에서 22일 오후 5시 현재 14.9%, 12.4%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량으로 추정할 경우 각각 주암호에 120만t, 동복호는 100만t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시 상수도본부는 "이번에 내린 비로 3~4일 후에는 주암호에 600만t, 동복호에 300만t의 상수원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제한급수 시기가 7월말로 늦춰지게 될 것이다"며 "그러나 완전 해갈에는 앞으로도 300㎜ 이상 강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